



16면

"4년 준비도 끝... 후회 없이"

전주매일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음 1월 16일) 제296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날... 여야, 선대위 출범식 열고 후보자 지지 호소

“전북서 대한민국 대전환”

민주도당 선대위, 출범식 갖고 “도민 지지 없이는 이재명 후보 당선도, 4기 민주정부 수립도 불가능 5대 강국 도약이나 과거로의 후퇴나 중요한 분기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선회전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대전환의 길에 나서겠다면서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대위는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식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민의 지지 없이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도 4기 민주정부 수립도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우리가 피땀흘려 이룬 성취를 이어가며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과거로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통해 다른 후보와 비교 불가능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북은 산업화와 정보화에서 뒤지면서 낙후를 낙인과 같이 겪어왔다”면서 “이재명은 기회가 없던 곳을 우선해서 더 많이, 더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이 균형이라고 밝힌 만큼

낙후된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지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4차 산업혁명·기후변화가 촉발한 산업 및 사회경제적 대전환은 위기인 동시에 전북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울러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대전환의 시기에 새민금을 그린뉴딜의 중심으로 혁신도시를 농생명 수도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전북은 민주당의 역사와 함께 민주당의 심장이며 도민의 뜨거운 지지는 용기를 매서운 비판은 촉비가 돼 민주당의 혁신 DNA를 깨우고 역동성과 활력을 높였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압도적 지지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세균 중앙선대위 상임고문도 이날 전북도당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 우리의 앞에는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와 양극화, 지방소멸 등 수많은 난관이

도시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풍랑을 뚫고 항해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선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흑수저로 태어나 민생을 잘 알고 서민의 아픔을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민생과 방역 외교,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잘 모르는 후보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실력과 성과를 지닌 유능한 이재명 후보만이 위기를 넘어 경제를 이끌 수 있다”고 치켜세웠다.

정 고문은 또 “다른 후보들이 말잔치를 벌일 때, 이재명 후보는 행동으로 보여줬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약속한 것은 꼭 지켜왔다”면서 “전북을 잘 아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덧붙여 “전북이 선택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4기 민주 정부를 창출할 수 있다”며 “그간 3번의 민주정부 창출은 전북도민의 성원과 지지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표심에 호소했다.

한편 전북도당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전북 선거구 목표 득표율에 대해 설불리 예단하며 “후보가 얻은 64.8% 이상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식 기자회견을 갖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역명사와 함께하는 문화여행’에 완주 소병진 명인 선정

전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명사와 함께하는 문화여행사업’에 완주 소병진 명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명사(名士) 여행’은 지역의 역사와 삶을 함께한 명사를 이야기(스토리텔러)로 발굴해 생생한 인생담과 체험프로그램을 관광 자원과 접목, 지역의 여행상품을 고급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천연염색인 사설(하드웨어),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벗어나 인적 자원(휴먼웨어)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광콘텐츠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소병진 명사는 토리텔러)으로 발굴해 생생한 인생담을 연구해 전주장(全州藏)을 재현해 지역의 완주 용진에서 꾸준히

작품활동과 후학양성에 열정을 쏟고 있다. 소병진의 ‘느림의 미학’ 짜맞춤 전통가구 만들기 문화여행’ 콘텐츠는 국가무형문화재 소목장 보유자(2014년)이면서 대한민국 명장 가구제작 1호(1992년)인 소병진 명인과 함께, 개성 넘치는 짜맞춤 전통 목가구 제작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완주군의 송광사 등의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콘텐츠로 특화한다. /유호상 기자

“이번 선거에서 전북 득표율 30% 달성토록”

국힘 전북도당, 정권교체 위한 선대위 출범식 “윤석열 후보, 전북 발전 약속 꼭 지킬 것” 호소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15일 오전 9시 30분, 전라감영 앞에서 전북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당일 행사에는 총괄선대위원장인 정운천 도당위원장과 이용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선대위 당직자 및 당원들이

참석했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지지자들이 현장을 찾았다. 이날 행사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진행되는 출범식을 비롯해 각 시, 도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유세를 동시에 중계해 이목을 끌었다.

전북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유세 상황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행사의 열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이후 진행된 총괄선대위원장 연설을 위해 정운천, 이용호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유세차에 올랐다.

먼저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수구 폐쇄 정당을 넘어 청년 중심의 정당이었다”며 국민의힘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어 “전북에서의 민주당 일당독재를 멈추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전북 득표율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용호 총괄선대위원장은 수십 년간 민주당만이 집권해 온 전북의 현실을 돌아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는 전북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며 “후남이 윤석열의 캠페이너가 될 수 있도록, 호남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지광 공동선대위원장은 긴 세월 동안 정체가 있는 전북의 현실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출정식은 당직자를 비롯해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의 대선팔승 구호 제창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유호상 기자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15일 오전 9시 30분, 전라감영 앞에서 전북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한 가운데, 정운천 위원과 이용호 의원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주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오늘부터 모든 동네 약국서 재택치료자 처방약 조제

팍스로비드, 지정된 약국서만 받아야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16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 후 처방받은 약을 모든 동네약국에서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재택치료 체계 개편 이행 방안 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재택치료 환자를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과 증상 시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 후 처방받은 약을 모든 동네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관리해 왔다. 재택치료 중 가벼운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전화 상담한 후 처방받은 해열제, 감기약 등은 시·군·구에서 지정된 약국에서만 조제해 왔다. 지정 약국은 본인 또는 가족·공동역리자 등에 연립해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에 조제한 약을 전달한다. 여기에 더해 16일부터 모든 동네 약국에서 재택치료자 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 후 처방받은 약을 조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단,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시·군·구에서 지정된 별도 담당 약국에서 조제해 전달한다. /뉴스시스